

<9월 학생영양정보 - 양서고등학교>

오늘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평소에 음식을 먹고 난 뒤 이것이 음식물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헷갈리지 않으셨나요? 알쏭달쏭한 쓰레기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

첫번째,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. 양파나 대파, 마늘 등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에는 영양 성분이 거의 없고 동물의 소화능력을 낮추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.

여기서 꿀TIP! 음식물쓰레기 VS 일반쓰레기 분류가 헷갈릴 때는 "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?"를 생각합니다.

염분이 많은 장류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기!

두번째, 고추장, 된장 등의 장류는 염분이 많아 동물의 먹이로 사용 할 수 없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.

세번째, 갑각류와 패류의 껍데기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. 게껍데기, 조개껍데기, 굴껍데기 등 갑각류와 조개류의 껍데기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동물이 소화시킬 수 없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.

네번째, 과육을 먹고 남은 과일씨앗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. 복숭아, 자두 등의 핵과류의 씨앗은 동물의 먹이로 사용 할 수 없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.

다섯번째, 지방이 많은 돼지비계와 내장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. 돼지비계와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동물의 먹이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.

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적절하게 분류하여 잘 배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. 해마다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본인이 먹을 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여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.

[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]